



에너지 업계 ‘팔방미인’, (주)케너텍

▲ 대구산업단지의 목질계바이오열병합발전

아파트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주)케너텍(대표 정복임, 신동오)은 ESCO 시장에서 항상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로 통한다. 업계 대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실적을 쌓아온 케너텍은 열병합발전시설의 '24시간 연속난방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 기술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임목폐기물 등 버려지는 자원을 연료로 활용한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주)케너텍을 찾았다. _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2001년 대전 신동아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된 후 국내 아파트 소형 열병합발전사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공뿐만 아니라 영업 시 발전설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변함없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열병합발전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의 이점에 대한 정부의 홍보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2000년 소형열병합발전이 태동하던 시기부터 케너텍의 아파트 소형열병합발전사업을 이끌어 온 유광환 전무의 말이다. 그는 아파트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1997년 (주)고신엔지니어링으로 설립된 케너텍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POSCO와 함께 20~50%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공업용 ‘가열로축열식 연소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에너지종합 전문기업으로의 행보를 시작했다. 뒤이어 각종 연소기기 개발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연소기기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국내 연소기술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일조했다.

1999년 4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된 고신엔지니어링은 그 다음해에 지금의 케너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POSCO를 주요 수요처로 하는 산업설비(요로)



▲ 유광환 전무

사업과 수요처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 열병합발전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SCO업계 선두주자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던 케너텍은 2005년 ‘공동주택 열병합발전 시스템 개발 및 보급·확대, 에너지절약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절약유공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사)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에너지위너상 및 에너지기술상”을 수상하며 국내 최고의 에너지절약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열병합발전시스템 최초 도입, 최다 실적 시스템운영자 실무교육 실시

(주)케너텍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열병합발전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2001년 대전 신동아아파트에 성공적으로 적용, 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열병합발전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어나자 케너텍은 타 업체와의 기술 차별화에 돌입했다.

케너텍은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저·온수-연속식 지역난방 시스템’ 기술을 개발, ‘24시간 연속난방’을 실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부하모델을 수집한 한국형 ‘소규모 지역 냉난방 시스템 시뮬레이터’와 ‘설계종합시스템’ 개발로 경제성분석과 경제적인 설비용량산출, 열공급 흐름도, 부하패턴, 물량 등을 자동으로 산출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열병합발전 시스템 설계를 제공해 고객의 편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유광환 전무는 “세계적인 엔진 제조업체인 독일 SIEMENS社를 비롯해 열병합발전기 전문업체인 린덴버그社와 애프터서비스 기술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체 전문 A/S 기술인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와 고객에게 최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케너텍은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장



▲ 케너텍 임직원들과 함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시스템 운영자 실무 교육’을 매년 실시, 하절기 열병합발전 운전방안 및 유지보수 교육영상을 통한 시청각 교육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우수 ESCO’로 선정되면서 열병합발전시장 선도업체로 인정받았다.

에너지판매까지 시대를 열다

(주)케너텍은 ‘국내 1호 구역전기사업자’라는 명판을 달고 있다.

2004년 7월 시행된 구역전기사업제도(CES)는 일반 전기사업자가 특정 구역 내의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케너텍은 기존에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는 사당 극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사당CES’ 사업을 추

진, “국내 1호 구역전기사업자”로 선정됐다.

구역전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전만이 전기를 직접 판매하던 시대에서 일반 구역전기사업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됐으며 제1호로 케너텍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동안 축적된 열병합발전기술과 사당지구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단지 및 건설사를 중심으로 CES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유광환 전무는 밝혔다.

최근 케너텍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청라에너지에 50억 원을 출자키로 하고 롯데건설, 인천도시가스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 에너지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폐자원활용,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우드칩, 톱밥, 산에서 별채한 임목폐기물, 벚짚, 왕겨 등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시설이다.

케너텍은 국내 최초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을 서대구산업단지에 성공적으로 적용,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동두천 염색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열공급시설을 추진 중에 있다.

유광환 전무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사업의 도입을 통해 산림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폐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 저감체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유휴 노동력의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해외자원개발,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

케너텍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말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카사바 경작지 595044000m²(1억 8천 만평)을 3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고 여기서 생산된 에탄올을 나이지리아 정부가 구매토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실적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에너지그룹인 누안사그룹과 공동으로 직접석탄액화(DCL)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여 석탄액화사업에도 진출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칼로리 석탄을 석유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앞으로 1년 동안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2012년까지 하루 10만 배럴 규모의 석유생산 체제를 갖추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3300만 배럴 규모의 석유를 추출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확보에 새로운 장이 열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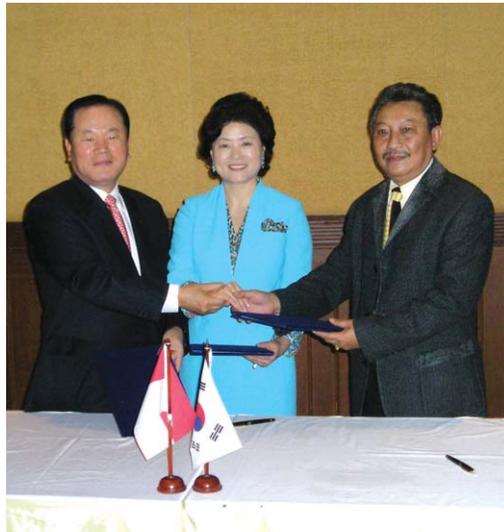
최근 케너텍은 포스코건설과 해외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케너텍은 국내외 사업개발업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관하며 사업관리와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포스코건설은 해당 사업의 EPC(설계·구매·건설)를 턴키로 수행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와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케너텍에 투자키로 하고 케너텍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사업실적 집계 결과 831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90억 원, 경상이익 46억 원, 당기순이익 3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경영실적은 전년 매출 대비 29.7% 증가한 수치며 올해는 매출 1,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유 전무는 말했다. ☺



▲ 인도네시아 누안사그룹과 석탄액화(DCL)사업 MOU 체결 (가운데가 정복임 대표)